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7호 【루계 제26041호】 주체107(2018)년 6월 1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여 서한과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축하서한과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축하서한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습근평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낸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중책을 지니고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중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의 련이은 뜻깊은 상봉이 특별한 동지적우의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고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정세변화와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이 줄기차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하시고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활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습근평동지와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께서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실것과 가정의 행복을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업적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에집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핵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이것은 김정일각하의 자주리념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많은 로작들에서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할데 대해 밝히시였으며 이를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으로 견지해오시였다. 뿐만아니라 뜨거운 민족애와 통이 큰 결단으로 력사적인 첫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였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김정일각하의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뜻의 결정체이라고도 할수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반도에 대결과 불신의 기운이 짙어가던 지난 세기 말엽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전체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6.15통일시대라는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캄보쟈국가라지오방송도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업적을 칭송하고 오늘 조선통일의 전망은 김정일각하의 조국통일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밝고 창창하다, 조선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10일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의 께레따로주에서는 경축집회와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메히꼬시에서는 업적토론회가 5월 31일과 6월 1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메히꼬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이 상영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께레따로주위원회 비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업을 계승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공고한 평화보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건설하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대범하고 아량있는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몸소 판문점 남측지역에까지 나가시여 전세계를 놀래우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데 대해 찬양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대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판문점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을 따라 백승떨쳐갈 철석의 의지

지난 20여년간 618만 5천여명이 당창건기념탑을 참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기념일을 맞으며 당창건기념탑으로는 참관자들의 물결이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주체84(1995)년 10월 당창건기념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지난 20여년간 618만 5천여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였다.

이것은 일편단심 위대한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또한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위대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에 대한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당창건기념탑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혁명적의리에 떠받들려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기념탑형성과 건립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수십차에 걸쳐 주시며 당창건기념탑을 주체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우리 당의 거대한 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탑으로,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력사적기념비로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리하여 당창건기념탑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게 되였다.

이에 대한 해설을 감명깊게 들으며 참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참관자들은 또한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를 보여주는 기념탑을 돌아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참관자들은 당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한 마치와 낫과 붓을 탑신으로 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원형띠,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우리 당의 력사를 보여주는 기단 등으로 이루어진 기념탑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이곳을 참관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세상에는 당도 많고 탑도 많지만 당을 상징하는 탑은 조선에만 있다고 하면서 당창건기념탑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최고급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있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탑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백전백승의 영광스러운 력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백배해지고있으며 세상사람들의 격찬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당창건기념탑을 끝없이 찾는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할 업적을 천추만대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일권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평양시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강재생산으로 들끓는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시에서는 150대의 화물자동차들에 수백t의 파철을 싣어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는데서 금속공업부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도록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더 많은 파철을 수집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이들은 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직관선전, 해설선전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파철수집사업이 군중적인 운동으로 벌어지도록 하였다.

만경대구역과 중구역, 서성구역과 순안구역, 선교구역과 대동강구역을 비롯한 구역들에서 5월 파철수집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6월에도 군중적운동으로 많은 파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만경대구역건물관리소와 제과도매소, 식료품종합상점, 중구역연료사업소, 평양어린이옷공장, 중구역화초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파철수집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떠받드는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임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서성구역의 책임일군들은 단위들에 나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더 많은 파철을 수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구역앞에 맡겨진 6월 파철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어린 많은 파철과 지원물자들을 받아안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강철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중요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채취기계공업부문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채취기계공업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11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전천착암기공장, 장산전기공장을 비롯한 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달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일군들은 아래단위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옳은 기업전략, 경영전략밑에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존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일터마다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릴 불타는 열의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능률높은 뽐프들을 생산하기 위한 창조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기술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각 직장의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제품의 질과 조립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일 맡겨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중요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대상설비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세형의 능력이 큰 권양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장에서도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설계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으며 로동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장치와 부분품조립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권양기제작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 성능높은 착암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마련되어있는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드높이 착암기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회령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석탄공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곳 생산자들은 어려운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탄차와 권양기, 사슬콘베아를 비롯한 설비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그밖의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해 기세를 올리며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뿌찐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친서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이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김영남위원장이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이하는 로조 두 나라사이의 훌륭하고 오랜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과정이 시작되고 평화의 전망이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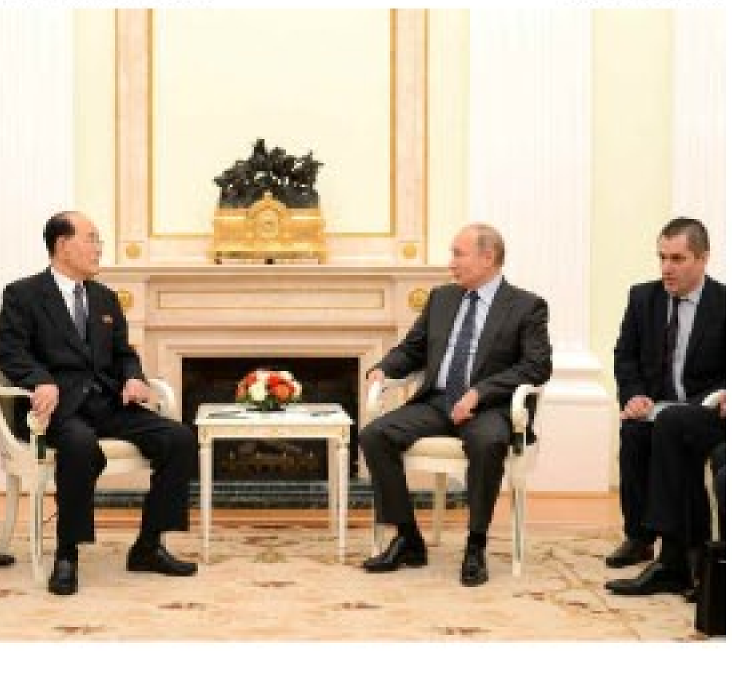
로씨야는 앞으로도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외무상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고위급래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여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신홍철 외무성 부상, 김형준 로씨야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 유리 우샤꼬브 대통령보좌관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